

한국도서관의 어린이에 대한 봉사와 아동도서

한 윤 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글은 “韓國の圖書館における 兒童サービスと子どもの本”라는 제목하에 일본어로 번역(林昌夫 譯)되어 圖書館雜誌(日本圖書館協會 發行, 月刊) 1997년 5월호(Vol. 91 No. 6, pp.351-354)와 6월호(Vol. 91 No. 7, pp.462-464)에 연재된 바 있다.

■ 편집자주

目 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대한 봉사 |
| 2.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봉사의 매개체 - 아동도서 | 4. 학교도서관의 봉사 |
| 3.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에 | 5.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어린이를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정신의 영향을 받은 후의 일이며 이 일에 앞장 선 사람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다. 그는 1923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아동도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선각자의 식견이었을 뿐 한국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의 고려는 경제개발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담긴 아동도서의 개발이나 도서관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봉사도 그 역사가 짧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의 아동도서와 도서관의 어린이에 대한 봉사를 현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하되 시설이나 자료에 관한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실제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여 현실적인 소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봉사의 매개체 - 아동도서

한국에서 최초의 아동잡지는 1906년에 발행

된 ‘소년 한반도’로 신학문을 소개하기 위한 아동교육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잡지였으며 1907년까지 간행된다. 이것에 이어 1908년에 아동문학지 ‘소년’이 발간되는데 주로 어린이들을 계몽하기 위한 교훈적인 내용이었고 이솝우화와 걸리버여행기, 로빈슨크루소 표류기 등 서양의 동화와 아동소설이 소개된다. 단행본으로는 1908년에 나온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을 최초의 아동용도서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각종 동식물의 세계를 통하여 인간사회를 풍자한 내용의 우화체 아동소설이었으며 한때 금서소동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최초의 두 잡지를 비롯하여 한국에서의 초기 아동도서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사상 아래 출간되었다. 하나는 조선왕조 시대의 지배윤리였던 유교사상 아래 형성된 장유유서적인 가치체계에서의 아동경시 관념을 불식시키고 어린이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어린이들의 민족적 의식을 일깨우고 그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써 세계 2차대전이 끝나는 1940년대 중반까지의 주된 흐름으로 이어진다. 1950년, 1960년대에는 6.25전쟁과 4.19혁명 등의 역사적,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통속적인 상업문학이 대두하는 한편 본격적인 아동문학의 생성기반도 한편에서 조성된다. 이 무렵까지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마해송의 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 ‘떡배 단배’, 이주홍의 ‘청개구리’, 이원수의 ‘파란 구슬’, ‘숲속의 나라’, ‘명월산의 너구리’, ‘잔디숲 속의 이쁜이’ 이현주의 ‘바보 온달’, 권정생의 ‘무명저고리와 엄마’, 강아지 똥 신현득의 ‘고구려의 아

이’, 박경용의 ‘어른에겐 어려운 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는 창작동화집보다 해외명작의 번역판이 주종을 이루고 계몽사와 금성출판사가 중심이 되어 날권보다는 전집으로 출판하고 판매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다가 1977년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창작동화집을 발행하면서 국내 창작물이 활기를 띠기시작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문학이나 위인전 위주에서 벗어나 전 주제분야에 걸쳐서 아동용 도서가 개발된다. 특히 창작과 비평사에서 ‘창비아동문고’를 창작동화, 전래동화, 세계동화, 위인전기, 과학동화로 나누어 출판하면서 아동도서의 날권 판매가 가능해지고 유통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가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아동도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사계절’, ‘풀빛’, ‘산하’ 같은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에서 아동도서 분야에 참여하게 되고 1990년대부터는 아동도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출판사와 서점도 등장한다. 대표적인 출판사로 ‘보림’, ‘마루별’, ‘비룡소’, ‘길벗어린이’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보림은 유아용 그림책만 20년째 출판해온 고집있는 출판사로 ‘연필과 크레용’시리즈를 펴냄으로써 한국 그림책의 수준을 여러단계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현재 어린이그림책 출판에 적극적인 출판사는 이외에도 ‘보리’, ‘현암사’, ‘시공사’, ‘한국프뢰벨’, ‘웅진’ 등이 있으며 1996년 조사에 따르면 창작동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 어린이 서적전문취급점인 ‘초방’이 1990년 12월에 문을 연데 이어 아동도서 전문서점의 개설을 돕는 ‘서당’, ‘좋은책’ 등의 아동도서 전문 유통회사가 생긴다. 이들은

1993년에 설립되면서부터 어린이 전문서점의 도서선정과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돕고 연령별 추천도서목록을 발행하고 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아동도서 관련사업으로는 즉석동화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동심을 파고드는 사업으로 어린이가 책을 사는 자리에서 이름과 주소를 대면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동화책을 즉석에서 받게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아동도서 관련 사업이 발전하면서 외국동화의 번역이나 그림위주에서 벗어나려는 작가들의 노력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강우현은 그림동화집인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팬더 심싱',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팬더 랑랑', '장난을 좋아하는 팬더 장장'을 민음사에서 펴냈다. 심싱, 랑랑, 장장은 세계적인 월트디즈니의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나 도널드덕에서 벗어나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캐릭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창작해낸 것이라고 한다. 유애로는 직접 깃별을 탐사한 뒤 온갖 깃별생물들을 리얼하게 표현한 '깃별이 좋아요'(96 어린이문화대상 수상작)를 펴냈으며 '돼라 돼라 뽕뽕'에서는 시력이 나쁜 하마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림'이 펴낸 '술거나라'시리즈, '길벗어린이'에서 펴낸 '내가 처음 가본 그림박물관' '우리 문화발전' 등은 한국의 문화를 그림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그림책시리즈로 수작이다. 전자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숨쉬는 향아리', '마고할미', '쭉뵈미를 찾아서', '한지돌이' 등이 눈에 띈다. '내가 처음 가본 그림박물관'은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의 옛그림 속에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작품들을 뽑아 삽화대신 쓰면서 이것들을 재미있는 옛이야기들과 엮어 만든 그림책이고 '우리 문화발전' 시리즈는 삽화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져오는 동물이나 전설적인 아기장수 혹은 전통악기 등의 모습을 그림책에 담은 것이다.

한국의 아동도서는 양적인 면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84년에 발행 부수 1위, 1986년 이후에는 발행 종수에서도 1위를 기록한 이래 학습참고서를 제외하고는 출판에 있어서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여 해마다 발행부수와 종수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1995년에도 발행종수에서 4163종을, 발행부수에서는 24,307,264를 기록하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적인 증가일 뿐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연령별 도서의 불균형 문제이다. 전체 아동도서에서 차지하는 유아용 도서의 비중이 큰 반면에 중학생용 도서의 비중이 너무 약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다음에는 아직도 외국도서의 복사나 재판집에 의한 출판이 많다는 점과 번역의 오류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편집기술이나 레이아웃의 미숙성, 아동도서 전문편집인이나 삽화가의 부족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3.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에 대한 봉사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도서관

은 이용자에게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시설, 자료, 직원의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며, 그 원인은 대체로 한국의 사회변동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1948년에 정부수립이 된 이래 한국전쟁과 군사쿠데타 등을 겪으면서 도서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만한 사회적, 정치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위정자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가시적인 경제성장에 두어져 정책효과가 당장 눈에 들어나지 않는 도서관정책은 수십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장기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도서관의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봉사의 실리와 허점을 살펴 보도록 한다.

공공도서관은 우선 설립별로 볼 때 국립과 사립으로 구분된다. 국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과 교육청 소속으로 대별되며 이들의 대중양 관계는 그 소속에 따라 내무부와 교육부로 구분된다. 그러나 소속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열람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의 봉사프로그램은 대부분 독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학독서교실, 도서관견학, 1일독서교실, 순회학교 독서교실, 이야기교실, 독서지도교실, 구연동화교실과 동화구연대회, 독후감쓰기 및 발표, 독서퀴즈대회, 백일장, 다독자 표창, 자모독서교실 등이 그것이다. 독서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으로 한문, 영어, 일본어, 컴퓨터 및 교양강좌 등이 있으며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도 있다. 특히 방학독서교실은 1971년부터 국립중앙도서

관의 지도하에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독서교육프로그램으로 독서지도와 도서관이용법, 독후감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하여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본운영계획을 세워 지방의 도서관에 시달하면 각 도서관은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 독서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호응이 좋아 지금은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234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독서교실을 열었고 3,533개교의 학교에서 학생 31,772명이 여기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별도로 어린이 전용으로 운영되는 도서관도 있는데 어린이도서관과 인표 어린이도서관이 그것이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한국에서 유일한 어린이(유아 및 초등학생) 전용의 국립 공공도서관으로 1979년에 세계어린이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설립하였다. 대지 약 5,620m에 건물 약 2,455m의 규모로 계 1,2 열람실과 유아실, 순회문고실, 관외대출실, 이야기실, 보존자료실, 교원 및 주부열람실, 교양강좌실, 시청각실 등이 있고 1996년 11월에는 전자정보자료실을 개설하였다. 1996년 11월 말 현재 133,932권의 도서자료와 160종의 잡지, 25종의 신문, 587종의 CD-ROM title, 비디오테이프와 영어회화 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등 각종 시청각자료를 갖추고 있다. 1995년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86명이 1,397권의 도서

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1996년 말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검색용 PC를 설치작업중이며 서울시내의 다른 공공도서관과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인터넷 전용선을 개설하여 인터넷접속도 가능하고 1997년 초에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올리기 위하여 작업중이라고 한다. 봉사프로그램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관련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다른 일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봉사프로그램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교원을 위한 자료실의 운영이나 취약지역의 어린이집을 비롯한 지역 봉사관 등 특수기관에 대한 순회문고 운영이 다른 도서관과 차별되는 봉사료 눈에 띈다. 도서관 간행물로는 계간으로 발행되는 '독서교육'과 연간으로 발행되는 '어린이와 독서'가 있다. 독서지도에 관한 논문이나 새로 들어온 책, 도서관행사 안내 및 행사 수상작품이 주로 실리는 이들 간행물은 서울시내의 초등학교 및 유관기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배부된다고 한다. 한편 한국의 유일한 어린이 전용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고민도 많다고 한 관계자는 말한다. 우선 시간대에 따른 공간 활용면에서의 비효율성이다. 이 도서관은 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에 있는 주중의 낮시간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고 주말과 방학에만 이용자가 몰린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중심부의 거주 인구가 신도시나 강남 등 새로 구성되는 서울 외곽의 거주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주변의 학교와 협조관

계를 맺어 낮시간에 단체로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도서관 이용교육이나 독서교육을 시키는 '1일 독서교실'을 열어 평일 낮시간의 도서관 활용을 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층의 확대로 중학교 1, 2학년생들을 이용자로 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데 자료구성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인포 어린이도서관은 에스콰이어 사회과학재단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생각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다. 1990년 5월에 서울 상계동에서 처음 개관한 이래 국내외의 각 지역에 계속 설립되어 1996년 현재 중국에 6개관과 구소련에 2개관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인포어린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도서관은 맞벌이 주부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대도시의 외곽이나 공단지대, 혹은 한국어와 한글을 잊어가는 조선족의 후손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에 설립된 것이 특징이다. 본 도서관의 본부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의 개관을 주관하고 개관 후 10년간 신간자료를 지원하면서 도서관의 운영과 봉사프로그램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해준다. 1992년부터 본부의 주관으로 각 도서관들의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강습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주요 봉사프로그램은 어린이도서관이나 여타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에서 제공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책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나도 작가라구요', '겨울이야기 그림그리기대회' 도서관에서 읽은 책을 그림으

로 그려 책받침으로 만드는 ‘독서 책받침 만들기’ 등 상세한 제목을 걸고 행사를 벌이는 점이 특이하다. 1996년부터는 각 인표도서관에서 10명씩 선발하여 2박3일간의 ‘독서캠프’도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의 훈춘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사랑 나누기 편지쓰기’ 행사를 벌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각 지역에 있는 인표어린이도서관 친구들과의 편팔을 주선한 행사라고 한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은 부모의 관심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설립되느니만큼 보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행사나 봉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4. 학교도서관의 봉사

어린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봉사 이외에 또 하나 중요한 도서관의 봉사로 학교도서관을 들 수 있다. 어린이는 보통 6-7세가 되면 초등학교생이 되고 그 이후 적어도 12년동안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학교도서관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시설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만큼 학교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교양 및 오락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발전되지 않은 관중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학교도서관을 들게 된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심장부로서 학교교육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라기보다 한낱 공부방으로서의 역할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현대적인 개념의 학교도서관 봉사는 1952년에 반개가제의 진주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처음 시작된다. 이어서 1954년에는 마산여자고등학교에, 1957년에는 경남고등학교에 완전개가제 도서관이 설립되는 것을 비롯하여 1950년대에 많은 학교도서관이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경상도 일대에 설립되고 1960년대 초에는 학교도서관 담당장학사까지 경상도 교육위원회에 배치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발달 체제를 갖춘다. 더우기 1963년에 공포된 한국도서관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197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도서관이 생겨 양적인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은 1980년대 초에 바뀌게 된 대학입학시험제도이다. 대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본고사제도가 폐지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력고사가 되면서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서 문학서적을 읽는 대신 교과서와 학습참고서 몇권을 가지고 주입된 지식을 단순히 암기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수험준비 태도는 학교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된다. 흔히 학교도서관 관계자들이 학교도서관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1980년대의 공부방 현상은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되다가 1993년에 처음 실시된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제도로 이토록 답답한 현상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암기위주와 주입식 교육으로 충분하던 과거의 시험제도와는 달리 새롭게 시도된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은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시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주입식교육을 지양하고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구학습과 토론학습, 현장학습, 실험실습에 의한 학습 등을 지향하게 되면서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역할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이무렵을 전후로 하여 공부방의 역할로 자족하면서 근근히 유지되던 몇몇 학교도서관의 젊고 유능한 사서교사들이 자료탐구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운영체제와 현대화를 표방하고 나섰으며,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에서 위원회는 국가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완성과 함께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self-directed)학습능력의 향상, 개별화학습의 강화,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정착시키겠다고 하면서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를 거론하여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발돋움을 뒷받침하게 된다. 물론 아직은 소수의 학교와 사서교사에 불과하지만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학교의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자.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송곡여자고등학교의 도서관은 3천명의 학생과 150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봉사하며 1996년 현재 단행본 1만3천권, 35종의 정기간행물, 12종의 CD-ROM title을 소장하고 있다. 이 학교도서관은 1993년까지만 하여도 폐가제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학년별로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냉난방 시설까지 되어있는 열람실을 도서관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학교도서관이었다. 이 학교의 도

서관에 변혁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1993년 젊은 사서교사 이덕주선생이 부임하면서부터이다. 이선생은 처음에 사서교사로 채용되면서 야간에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감독하도록 명을 받지만 부임 얼마 후부터 도서관과 사서교사로서의 제자리를 찾기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나타난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화와 교육개혁안 등의 힘을 입어 이선생은 자습실로서의 도서관을 진정한 학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한다. 이 학교도서관의 변화된 시설과 봉사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우선 자료실의 확장이다. 열람실은 종전대로 학생들의 자습실로 제공하고 있지만 확장된 자료실에서는 사서교사가 상시 근무하면서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고 참고봉사에 응하며 교사용 자료실을 운영한다. 부족한 오락용 도서나 교사용 문학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이동문고를 활용하여 보충하며 무인복사기를 설치하여 대출되지 않는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꾀하고 있다. 1995년부터 도서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종합정보통신망선(ISDN)을 개통하여 국내 통신망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접속이 된다. CD-ROM 검색을 통하여 각종 문헌정보와 시사정보를 제공하며 단순한 도서대여점의 수준을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육 및 학습정보 제공을 도서관의 최우선의 봉사과제로 삼고있다. 또한 자료탐구학습을 실천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협동교수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을 시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정보이용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3-4년 전만 하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학교도서관의 모습으로 한 사서교사의 열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학교도서관의 변화에 힘입어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따르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1995년부터 이선생을 중심으로 몇몇학교의 사서교사들이 모여 자율적인 연수회를 갖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의논하고 있다. 물론 송곡여자고등학교의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건물의 낙후함과 더불어 도서관의 시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편에 속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진정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지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1995년의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62.4%, 중학교의 84.9%, 고등학교의 98.3%에 해당하는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75.1%의 초중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다. 또한 중학교의 1.3%와 고등학교의 6.2%,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비록 아주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상과 같은 사서교사들의 움직임이 있어 학교도서관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되며 교육부에 건국후 처음으로 교육정보자료 담당관이 배치되어 학교도서관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설치된 것도 역시 희망을 주는 하나의 청신호라고 하겠다.

5. 맺는말

도서관을 발전시키려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경제적인 뒷받침,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 비하여 예산과 사람,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모두 부족하여 발전을 못한 관중으로 꼽힌다. 더욱이 어린이에 대한 봉사는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늘 한발 뒤쳐져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이 현대의 추세를 쫓아 전산화의 가도를 급하게 달리고 있을 때 초등학교의 도서관에는 사서교사 한명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의 예산은 전산화에 필요한 예산에 투자되느라고 축소되고는 한다.

필자는 흔히 말하는 도서관의 3대 요소인 시설, 자료, 직원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꼽으라고 하면 서슴없이 사람을 들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성과 역량에 따라 도서관의 봉사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지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도서관계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사서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글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한국문화예술회관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3). 도서관 발전정책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 문화체육부.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업무현황(1996)

교육부(1995). 교육통계연보. 서울 : 국립교육평가원.

이재철(1983). 아동문학개론. 서울 : 서문당.

송영희 외(1992). 장서개발론. 서울 : 구미무역.

〔 국내 발행 · 제작자료 납본 안내 〕

- 납본은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 납본은 법으로 규정된 발행 · 제작자의 의무입니다.
- 발행 · 제작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합니다.

1.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자료는 국가문헌으로 영구보존하여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가. 제출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비디오 CD, CD-ROM, CD-I, CD-G, 기타 CD제작물, 전산화자료, 지도, 슬라이드, 마이크로형태물 등

나. 제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출판 · 제작자

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라. 제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137-702)

대표전화 02)535-4142, 직통 02)537-9648, FAX 02)533-4228

마. 기타

-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드립니다.
-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받습니다.